

사설

한·중·일 우호의 열매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한·중·일 불교교류우호회의 제3차 대회가 일본 경도에서 성료됐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세기를 어떻게 맞이할까 아니면 21세기는 어떤 세기가 되어야 할까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번 대회는 불교의 세계적 역할에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995년 첫모임을 가졌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는 역사적으로 '불법홍통을 유대로 면면히 이어가는 황금의 고리'임을 역설하면서 중국의 북경에서 제1회 3국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사회 종교 정치 경제 여러 분야의 중요인사들이 관심 있게 참여함으로써 성황리에 회의를 마쳤다. 제2회 대회는 1996년 9월 서울에서 '21세기에 있어서 한·중·일 불교의 사명'이란 주제를 갖고 부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우의와 협력 관계를 고취했다. 이제 이런 출발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열매가 가면서 열매는 일본의 경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21세기는 정신의 시대라고 한다. 신구세기의 전환기에 즈음하여 역사의 바른 인식을 깊이하여 전쟁의 재화를 교훈으로 하여 삼국불교도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사회의 안녕과 정화를 촉진하여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확신한다."

이 말은 이번 경도의 제3회 한·중·일 불교삼국불교우호교류회의에서 채택된 일본선언에 담긴 내용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라는 목적적 표어를 내세운 뜻을 잘 표현해 준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제 사업, 둘째 삼국불교우호교류회의를 발전 확충시키기 위한 협의, 셋째 학술 및 인적교류의 제사업,

넷째 불교이해를 한층 깊게 하기 위한 제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홍포의 제사업 등을 들고 있다. 모두 하나같이 목적에 걸맞은 실천사업들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세기가 열리는 지금을 맞아 시의적절하고 희망적인 회의가 이어지게 되었음을 우선 반기는 마음이다. 차제에 우리 모두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문제를 짚어보면서 이 회의가 외화내빈적인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속속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삼국의 우의를 다지는 것은 물론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 이 진리를 실천하고 우매한 대중을 위해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스승과 불자들이 혹시 편협되거나 왜곡되게 가르치는 일은 없는가. 더 나아가 선 문명한 대중들의 어리석음을 좇아 오히려 부당한 일을 없게끔 먼저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대중들은 부처님 말씀을 가리키는 스승의 손가락을 쳐다보기 때문이다. 그 손가락이 편협되고 왜곡되고 부당한데서야 옳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대중들은 절에 간다고 해서 불교도가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어야 불교도이다. 나의 종교적인 마음이 혹시 나 개인의 영달이나 욕심채우기나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부처님앞에 선다면 그는 절에 다니는 반불교적인 대중일 것이다. 모처럼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경이할 마당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속마음을 한 번 씻어볼 계기로 삼아보자는 뜻이다. 이런 정정함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목표를 내어건다고 한들 허수아비놀음일 뿐이다.

소적새마을

종합복지타운 추진

강원 황성에 19만평 부지마련...내년 4월 기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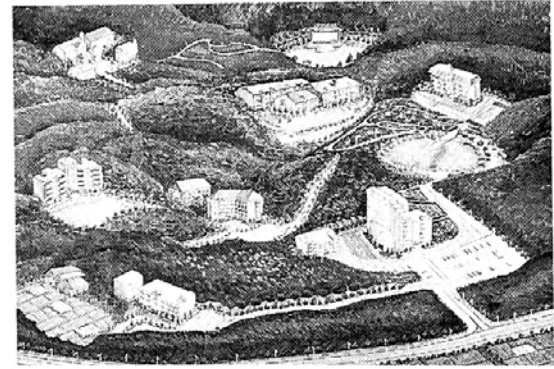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강원도 황성군 안흥면 송현리에 95년 승가원 설립 이후 2년간 추진해온 19만7백 49평의 소적새마을 부지를 선정함에 따라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복지타운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승가원은 10월 24일 오후 2시 중앙승가대에서 승가원 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 발표회를 개최하고 부지매입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했다. 소적새마을은 내년 4월부터 2천5년까지 종합복지타운 부지에 2백여명의 대우전을 비롯 병원 노인요양원 자원봉사자센터 연수원 체육관 속

소 직원주택을 짓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와 재활작업장 재활농장등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 가족 3명을 위한 장애인부부주택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회에서 승가원은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땅 한평 사기운동' 후원자들의 부지매입 계약금 10%를 9월 30일 지급한 상태라며 총예산 3백68억의 조성을 위해 20%의 자부담, 30%의 기업, 사회단체의 기부채납, 50%의 정부보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3천여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복지타운 소적새마을 구상도

“기초의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자”

조계종 목사 11명 '승려법 개정' 청원

조계종 기초교육기관으로 승가대학(중앙승가대) 강원) 선원 동국대 이외에 울원이 추가 지정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스님(봉도사 부방장)을 비롯 목사 11명은 기초의원을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청하스님등 목사님들이 제출한 청원에 따르면 울은 선, 교와 함께 출가 승가가 지녀야 할 중대한 요건이며 기초의원 설립과 교육기관으로서의 학력인정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 강원이나 강원교육에서 스님으로서 수지해야 할 사본들이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강원 연합 논의

승가대학인원 확대 논의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비대위원장 범우스님)은 10월25일~26일 대전 중앙불교대학에서 범어사 등 14개 강원 4백여명의 학인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대의원의 및 '97학인대회를 개최했다.

25일 대의원회의에서는 전승련 정관개정으로 △전국전통강원연합 결성 △조직체계 조정 △재정조항 삭제 등을 의결하고, 토론회를 통해 △국립공립관람료 폐지운동 적극 동참 △구족계 수지 자격요건의 평등화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26일에는 서도(書道), 역경, 법고,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을 가졌다.

세계불전협 2000년대회 서울서

올 日대회 대장경전산화 통일안 마련 못해

오는 2000년 세계불전협대회(이하 불전협) 제6차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불전협회는 10월23~26일 일본 오타니대학에서 '마크업(Mark Up)과 코딩(coding)'을 주제로 제4차를 열어 5차 회의는 1999년 대만에서, 6차 회의는 2000년 서울에서 개최기로 하는 한편 '불전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간의 의견 조율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따라서 2000년 제6차 불전협회는 그동안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 진행하고 있는 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국제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한국불교계가 불전협회의 주요 회원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불전협회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대장경 등 불교문화 전산화의 표준화를 꾀하고 '세계 불교문화D/B'를 구축하기 위해 창립된 세계 유일의 불교문화 전산화 협의기구이다.

한편 이번 4차 회의에는 14개국 1백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를 위해 현행 승려법 제17조 1항의 "종단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을 수료하였거나 기초선원과정을 이수한 자는 종단에 지정된 단일계단에서 비구 비구니계를 흡수한다"에서 "기초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은 교육과정이 3년으로 사미(1학년) 치문(2학년) 아함경(3학년)이 적당하며 인원도 강원수준보다 훨씬 많지 않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제출한 청원서는 19일 총회 교육문화위원회, 토론회를 통해 △국립공립관람료 폐지운동 적극 동참 △구족계 수지 자격요건의 평등화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26일에는 서도(書道), 역경, 법고,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을 가졌다.

△금자 구현 체계 △문장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불전 통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99년 대만에서 열린 차기 회의에서 마크업·코딩 등 불전 통일안이 다시 논의된다.

그러나 불전협회 회원국은 팔리·신수·중화·고려대장경 등의 전산화 작업이 다른 방법으로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통일안보다는 각국이 개별-사용하고 있는 방식 중에서 가장 나은 안(案)을 '공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불전 통일안' 논의는 2000년 6차 회의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신도증발급 극히 저조”

조계종 종정감사 보고서

조계종 종정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후)는 10월28일 8개 반이 15일간 벌인 종정감사에 대한 종합 평가와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신도증 발급현황이 평균 20%에 머물러 상당히 미진해 확보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송광사 방장추대도 촉구했다.

WFB 28차 대회

내년 10월 호주서

WFB 제28차 국제대회가 98년 10월 호주 울롱공에서 열린다.

WFB한국본부 박동희 회장은 WFB본부 회장이던 최근 회의를 열고 4년마다 열리는 대회를 호주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세기는 지역복지 시대”

4대 종교 '복지역할' 포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10월 27일 개최한 '종교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불교복지 제4차 세미나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등 4대 종교 참가자들은 "21세기는 지역사회에 중점을 둔 정신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종교복지재단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한 성문(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삼산사주지)스님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25개 구구본사와 지역사회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지역공공재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복지정책은 경제능력에 결맞는 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예산의 투자로 생산적 인력을 창출한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결국 한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종교계의 복지참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순회목사(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간사)는 '기독교

“지역사회 정신복지 관심 필요”

불교·기독교·원불교 등 동감

교 사회복지의 현황' 발표를 통해 "21세기를 맞아 정신적인 구호가 중요한 봉사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동체성 상실과 정체성 상실에 대하여 영적이고 정신적인 사회구조적 봉사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활동 개요"를 발표한 최재선국장(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은 "가톨릭교회는 교구 및 분당예산의 10%를 투여해 21세기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사목과 사회통합적 다양화를 통해 전문성제고와 국제구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불교 고운석관장(원광장애인복지관)은 "원불교의 복지활동을 통해 '앞으로 북한및 외국의 난민과 빈민 구호사업을 통한 세계평화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교의 사회복지시설 현황(96년 기준 문제부 등락)은 총 653개소중 종교계에서 653개소(82.8%)를 운영중이며 각 종교별로는 불교 37개 개신교 4백17개 가톨릭 74개 원불교 17개 기타순으로 나타났다. 불교 복지시설에 비해 개신교는 13배 천주교는 2.3배로 기독교가 전체사회복지시설의 75.2%를 차지했다. <우>

정근페퍼 커뮤니케이션

현대만평



불교 세계화를 위해 함께...

737-8881

성명서

사찰지역 공원 입장료 징수폐지 서명운동에 붙여

사회정의와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 주지 모임"에서는 9월 22일 제주 관음사 결의에 따라

"사찰 지역에서의 공원 입장료 징수 철폐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그 결의의 당위성을 국민대중에게 천명하고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폐지와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 전통 사찰이 처해있는 상황과 부당성은

- 첫째 :** 사찰이 공원이고, 공원이 곧 사찰이다.
- 1) 우리 나라 자연공원의 대부분은 사찰을 중심으로 주변사찰 일대에 지정 되어 있다. 따라서 공원의 실제 소유주는 사찰이다.
 - 2) 공원의 관광자원으로써의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사찰과 사찰림은 거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 둘째 :** 문화재 보호구역이 곧 공원이고, 공원이 곧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 1) 대부분의 사찰과 사찰림은 자연공원법보다 강력한 (행위제한이 극심한) 문화재 보호법 적용지역이다.
 - 2)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 주변 환경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또는 명승지로 경내와 사찰림 대부분을 지정 보호하고 있음으로, 사찰의 자연공원 지정 자체가 무의미하다.
- 셋째 :** 사찰 문화재 관련된 한 장이면 공원지역 출입까지 허락 받은 것이다.
- 1) 문화재 관람료는 소유자인 사찰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징수한 것으로 입장 및 관람의 범위는 사찰 경내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지역을 포함한다.
 - 2) 문화재 소유자로부터 이미 출입관람을 허용 받은 이용자에게 남의 소유 문화재와 재산을 근거로 또다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안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유래를 찾을 길 없다.

- 넷째 :** 지금 내무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안행은,
- 1) 1970년대 소유자인 사찰의 동의 없이 남의 소유재산을 근거로 공원 입장료를 계속 징수해 왔으며,
 - 2) 일부 합의된 사찰의 경우도 합의된 30%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 3) 1987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관할권을 이관하면서 약속한 "5년내 공원입장료 징수 폐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4) 1997년 내무부, 문화체육부, 조계종이 합의한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 합동징수 원칙이 내무부 산하 하급기관인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의 독단으로 일방 파괴되는 하극상의 추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불공정·부당·불평등한 상황이 계속 되어도 국민민복과 공익의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해 왔다. 그러나 작금의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중심으로한 당국의 오만 불순한 안행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의 인내와 자제를 거부하게 한다.

이에 우리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주지 모임"은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를 단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 첫째 :**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 1)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에서의 공원입장료 징수의 부도덕성과 부당성을 시인하고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2) 문화재 보호법 및 전통사찰 보존법 적용 사찰과 일대에 대한 공원 지정을 해지하여, 불교발전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사찰의 자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3) 공원 관리 운영 예산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것을 촉구한다.
- 둘째 :** 이천만 불자와 함께 결의하건대
- 1) 공원입장료 징수 거부운동과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2) 법률적 대응도 불사한다.
 - 3) 범불교, 범국민 결의대회를 강행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1997. 10. 24.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주지 모임일동